

제주도민 마약류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적발된 도내 마약 사범 2018년 56명→ 지난해 113명
오·남용 폐해 인식도는 75.5점 그쳐... 전국 꼴찌 수준
도, 15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예방교육 등 강화

최근 제주에서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도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폐해 인식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18년 56명에서 2019년 89명, 2020년 93

명, 2021년 75명, 지난해 113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실시한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전국 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의 인식도는 75.5점(전국 평균 81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15개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류 특별관리 대책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범도민 캠페인 및 예방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민의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범도민 캠페인 전개, 마약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유흥업소 및 학교·학원가 등 취약지 점검 활동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한다.
또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대해 도교육청 중심으로 도약사회, 보건소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 마약류 관리자, 대마재배지 등 마약류 취급업소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통 여부 등 현장 위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대상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 연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강대혜기자 dhkang@ihalla.com



22년 만에 완전 개통이 이뤄지는 연북로 삼화지구 방면. 제주시 제공

도시우회도로 연북로 22년 만에 완전 개통 번영로·연삼로 교차 지점에 교통시설 추가 보완

제주시 연북로 미개통 구간인 번영로에서 도련사거리 서측을 잇는 도로 개설이 완료돼 8일 개통한다. 제주시는 이로써 제2도시우회도로인 연북로가 2001년 사업 시작 이후 22년 만에 완전 개통하는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연북로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우회도로로 노형2지구 노형로에서 삼화지구 연삼로를 연결하는 총 길이 11.5km, 폭 35m의 도로다. 앞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노형동 롯데마트사거리에서 번영로까지 9.54km가 개설돼 도심지 내 교통량을 분산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미개설 구간인 번영로-삼화지구에 대한 도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제주시는 2015년부터 잔여 구간 1.96km에 대해 총사업비 492

억원(보상비 292억원 포함)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5월 착공 뒤 올해 3월 준공했다. 미개설 구간은 당초 4월 초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결과 시·종점 교차로의 사고 위험성이 지적돼 교통 안전 시설을 추가 보완하면서 그 시기를 한달가량 늦췄다.
교통 시설 보완 내용을 보면 번영로 교차 지점에는 제한속도(60km/h)에 맞춘 과속 단속 카메라 2대, 신호 단속 카메라 2대, 교차로 내 색깔 유도선, 교차로 덧씌우기,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이뤄졌다.
또 연삼로 교차 지점에는 제한속도(40km/h)를 단속하는 카메라 1대, 횡단보도 조명등, 교차로 내 색깔 유도선,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이 보완됐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7살 119 구조견 '초롱이' 고사리 채취 실종자 찾아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70대가 119 구조견 초롱이에게 발견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인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A(79)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19 구조견 초롱이(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구조대원 등 5명을 투입해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실시했다.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게 낀 악기상 속에서도 신고 접수 40분 만인 오후 1시33분쯤 초롱이가 A씨를 발견해 구조대원들에게 위치를 알렸다.
구조된 A씨는 다행히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어 병원 이송 없이 귀가 조치됐다.
올해 7살인 119 구조견 초롱이는 지난 2019년 4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배치된 이후 60건의 사고 현장을 누비며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에서 활약중이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초롱이와 함께 저면 세퍼드 강호가 배치돼 활약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어린이날 실내 축제 북적 어린이날 대축제가 비 날씨로 인해 지난 5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실내에서 열렸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제형 프로그램을 즐겼다. 강희만기자

야심한 밤, 골프장에 침입한 까닭은...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15만개 훔친 2명 경찰행

제주지역에서 손님들이 골프를 치다 물 웅덩이(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이른바 로스트볼 15만개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심야 시간 도내 골프장을 돌며 골프공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6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씨로부터 골프공을 사들인 50대 남성 C씨 등 2명을 장물 취득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내 골프장 20여곳을 돌아다니면서 물 웅덩이에 빠진 골프공 약 15만개를 훔쳐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을 끝난 심야에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 속에 있는 공을 꺼내기 위해 잠수복과 장화 등을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C씨 등 2명은 훔친 골프공인 것을 알면서도 공 1개 당 200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도내 골프장에서 골프공이 사라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다가구주택 화재로 이재민 7명 발생

제주시의 4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50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9분쯤 제주시 연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인근 주민이 '뽕'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다가구 주택 2층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원 47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오후 8시28분쯤 초진을 완료하고 1분 뒤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다가구 주택 내부가 전소되고 차량 1대 등이 파손되며 소방서 추산 5042만원의 재산 피해를 비롯해 이재민 7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국과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개원 24주년 한마음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건강과 행복을 가꾸는 병원

한마음병원은
행복한 환자, 행복한 직원, 행복한 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www.hanmaeum.jeju.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이도이동)

■ 대표전화 064)750-9000
■ 진료예약 064)750-9100
■ 응급의료센터 064)750-9119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064)750-9131
■ 코로나19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 064)750-9131